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제6기 지역 사회보장계획' 수립

정읍시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돌봄과 소득, 일자리 정책의 기준이 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오는 9월 말 확정한다.

시는 20일 시청 구청회의실에서 정읍시 지역사회보장 실무회의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정읍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수행기관인 (주)지식산업연구원 연구진은 연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계획의 기본 방향과 세부 사업안을 발표했다. 사업안에는 정읍시민 대상 실시한 복지 수요 조사 결과와 지난 5월 민·관 합동 심층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제6기 계획은 돌봄과 복지 안전망 강화, 소득 보장, 일자리 확대, 민·관 협력체계 마련 등을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시는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사업을 다듬고 9월 말까지 계획을 확정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지역 활동가와 '자격이음' 성과 나뉘

정읍시와 정읍시지역활력센터는 지난 19일 지역 활동가의 자력과 재능을 필요한 마을에 연결한 '마을과 재능을 잇다-자격이음'의 성과를 나눴다.

활동가들은 주민들의 희망을 반영해 미술교실과 소도구 활용 놀이, 어르신 품팔기 운동, 웃음치료와 치매 예방 활동, 순가락 난타 등을 진행했다. 미술심리와 기억력 향상 활동, 건강체조, 향기요법, 천연화장품 만들기도 선보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주요 활동 성과와 활동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마을별 활동 영상 상을 시청했다. 활동가들은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느낀 보람과 현장의 반응, 개선이 필요한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전북지역성장펀드 참여

지역 유망기업 성장 지원 투자 본격 시동... 1000억원 규모로 5년간 30억원 출자

정읍시가 전북지역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1000억원 규모의 전북지역 성장펀드에 참여해 앞으로 5년간 30억원을 출자한다.

시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전북지역성장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지역기업의 혁신 성장과 투자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결성식에는 이학수 시장도 참석했다.

전북지역성장펀드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자금의 불균형을 줄이고,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유망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투자기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조성을 주도했다.

이번 기금에는 정부 모태펀드 출자금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김제시, 익산시의 자금이 들어간다. 금융기관과 대학, 지역기업도 참여해 모두 1000억원 규모의 상위 투자기금으로 조성됐다.

조성된 자금은 전북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벤처기업을 찾고 육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기금 출자를 계기로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새로운 투자를 불러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5년간 30억원을 출자한다.

이학수 시장은 "전북지역성장펀드가 정읍의 주력산업과 유망기업에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 투자와 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은 20일 하서농협 대회의실에서 하서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네 번째 농촌왕진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부안군,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양·한방 진료 및 치과·안과 검진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부안군은 20일 하서농협 대회의실에서 하서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네 번째 농촌왕진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농촌왕진버스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과 고령 농업인 등을 직접 찾아가 양·한방 진료, 치과·안과 검진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관내 농협과 협력해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남부안·계화농협·부안중앙농협과의 세 번의 성황리 운행에 이어 진행된 이번 4회차 농촌왕진버스는 하서면 지역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이날 현장에는 대한의료봉사회,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더스토리 안경원 등 3개 전문 기관의 의료진과 봉사단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전문 분야별 맞춤형 진료와 검진을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앞으로도 부안읍·동진면·백산면·주산면, 변산면·위도면 지역을 대상으로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안군수는 "농촌왕진버스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진료와 검진을 가까운 곳에서 제공하는 현장 중심 복지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리는 기반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수,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앞장"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실내·외 방역소독비 지원 등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논의

심덕섭 고창군수가 20일 오전 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고창군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심덕섭 군수와 강형철 고창군어린이집 연합회장 및 어린이집 원장, 보육담당부서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고창군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며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고창군은 올해 어린이집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실내·외 방역소독비를 지원하고 있다. 관내 18개소를 대상으로 현원에 따라 연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난해는 어린이집 조리사의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안



정적인 급식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조리사 대체 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앞서 2024년에는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아이들이 건강

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일이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집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고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의 매력을 사진에 담아주세요’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31일까지 접수... 총 61점 선정, 상금 1150만원 규모

고창군이 지역의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알리고 매력적인 사진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2026 고창 관광사진 공모전' 출품작을 오는 8월31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군이 주최하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전국 사진 애호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고창의 문화·자연유산, 관광지, 축제 등 고창 관광 홍보에 적

합한 미발표 작품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지난 공모전들과 달리 드론 촬영 사진을 특별 우대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기존 지상 촬영의 한계를 넘어 고창의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경관을 다각도로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응모는 11x14 규격의 인화 사진(1인당 4점 이내, 출품료 2만 원)으로 접수하며, 마감일인 8월 31일(당일 도착분 유효)까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

지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금상 1명(200만 원), 은상 2명(각 100만 원) 등 총 61점에 상금 1,150만 원을 수여한다. 심사 결과는 9월7일 발표되며, 입상작은 향후 고창군의 각종 홍보물과 전시 등 공익 목적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나운욱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고창의 숨겨진 매력을 담은 멋진 작품들이 많이 응모될 수 있도록 사진 애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KBS '전국노래자랑' 참가자 모집

9월 12일 개최· 9월 3일까지 읍면사무소·군청 홍보팀 예심 접수

부안군은 KBS 인기 노래 경연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 부안군편'을 오는 9월 1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선 공개녹화는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부안 해달마루 지방정원 특설 무대에서 진행된다.

전국노래자랑은 30여년간 전국 각지를 돌면서 진행하는 지역주민 노래 경연 프로그램으로 故 송해씨를 국민 MC 반열에 올린 프로그램이며 송해씨에 이어 인기 개그맨 남희석씨가 MC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전국노래자랑은 유명 가수의 초대 공연을 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특산물도 함께 소개돼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참가신청은 20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3일 오후 6시까지 부안군 읍면사무소와 군청 홍보팀에서 접수하며 예심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예심은 오는 9월 10일 오후 1시 부안 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15팀 내외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한다.

본선 공개녹화는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부안 해달마루 지방정원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며 초대 가수로는 신유·강문경·미스김·이수연·박철규&엄지인 등 인기가수가 출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가을 여행철을 맞아 전 국민이 사랑하고 시청하는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넉치는 끼와 재능을 겸비한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의 자연

고유생물의 서식지

고창 갯벌

전주매일 캠페인

고창갯벌은 곰소만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갯벌로 세계 최고수준의 저서규조류 생물종을 보인다. 또한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최대 서식지로 유명하다.

고창갯벌은 약 194종의 저서규조류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바지락과 동족이 서식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고창갯벌은 100여 종, 20만 마리의 물새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중 IUCN 적색목록 21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EN등급)인 황새의 국내 최대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 세계 1종 1속만 존재하는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 고창갯벌에는 갯벌 위아래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사질 퇴적체인 쉼니어(Chener)가 관찰된다. 쉼니어는 자갈, 조립질 모래와 조개껍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의 영향을 받아 육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쉼니어는 갯벌에 둘러싸여 있으며, 바닷물에 잘 잠기지 않아 철새들의 동지 및 휴식처의 역할을 수행한다. - 출처: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 -